

서정원의
불교미학산책

⑳ 만해동산

침묵이라는 언어

지난 연재에서 산책한 동국대학교 팔정도는 사실상 학교의 마루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남산자락을 오른다는 의미에 침잠해 왔다면 이제는 내려가는 과정을 톺아봐야 할 시간이다. 그런데 아직 마루에서 둘러볼 곳이 한 군데 더 있다. 바로 만해동산이다. 팔정도에서 본관을 끼고 구석으로 들어가면, 만해 한용운(韓龍雲, 1879~1944) 스님을 기리는 '만해한용운시비(卍海韓龍雲詩碑)'와 함께 대리석으로 장엄된 작은 정원 공간이 나타난다. 이곳이 만해동산이다.

만해동산은 원래 '만해한용운시비'를 중심으로 나무 데크로 장식돼 있었고, 또 주목나무가 에워싼 다소 갑갑한 공간이었다. 지금은 이 나무 데크를 걷어내고 대리석으로 정돈했으며 나무도 다시 식재해 서울 북쪽의 전경을 시원하게 내려볼 수 있게 했다. 멀리로는 인왕산과 북한산의 전경이, 가까이로는 종로 도심 전체가 한눈에 들어온다. 호연지기가 절로 드는 곳이라고나 할까.

만해동산 중심에 자리한 '만해한용운시비'에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대표작인 '님의 침묵'이 새겨져 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은 동국대의 전신인 명진학교 1기 졸업생으로 학교 곳곳에는 만해관, 만해광장, 그리고 이곳 만해동산까지 만해의 이름을 딴 장소가 많다. 오늘 산책에서는 이 '님의 침묵', 특히 '침묵'에 대해서 사색을 더해 보고자 한다.

침묵, 조용함은 불교에서 매우 높은 가치를 부여 받는 행위이다. 침묵은 철학 일반에서는 관조(觀照)라고 불리며, 사실상 사색의 시발점으로 이해되므로 그 중요성이 불교에 비해 낮은 것은 아니다. 다만 뉘앙스상 불교의 침묵이 그 안에서 언어화·개념화 작업을 정지하는 작용, 즉 선(禪)과 연관된다면, 일반 철학에서 관조는 내면 안의 뜨거운 사색, 즉 음성화되기 이전 혹은 내면적 음성언어라는 파롤(Parole)의 작용이라고 보는 것이다. 편의상 전자를 '언어를 초월하는 침묵'으로, 후자를 '언어를 가다듬는 침묵'이라고 부르겠다.

문제는 '님의 침묵'의 침묵이 '언어를 초월하는 침묵'인지, '언어를 가다듬는 침묵'인지에 달려 있겠다. 하지만 시라는 특성상 연구논문처럼 개념어들의 명확한 정의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상 시에서도 침묵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만 나타나며 떠나 버린 님과의 소통이 불가능해진 상황, 즉 님의 부재를 묘사할 뿐이지 침묵 자체가 님의 의도와 어떻게 엮이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수능 언어영역 지문 풀이와 같은 이 이야기는 접어두고서 불교교리적 이해해서 다시 침묵의 의미를 살펴보자.



동국대 만해동산과 이곳 중심에 자리한 만해한용운시비.

언어 초월 침묵은 본래적 깨달음
가다듬는 침묵은 없던 지혜 완성
불교서는 불방일 위한 침묵 중요

다소 엉뚱한 전회(轉回) 같지만, 깨달음은 있는 것일까 만들어지는 것일까? 이 차이에 따라 '언어를 초월하는 침묵'과 '언어를 가다듬는 침묵'의 가치가 달라진다. 깨달음이 본래 그것에 다가가기만 하면 된다면 '언어를 초월하는 침묵'만이 깨달음과 어울리는 침묵이다. 이는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에서 '본각(本覺)'과 '시각(始覺)'이라고 표현되는 본래적 깨달음과 그것에 이르는 사고방식이다. 다른 작용과 상호 관계를 갖지 않고 그저 내면으로 절대적으로 침잠해 내려가면 그 가장 깊은 곳에 모든 존재를 낳게 하는 기층(基層)으로서 깨달음을 마주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의 뿌리로서 깨달음, 본각을 알게 된다면 산천초목이 다 깨달아 있음을 알게 된다. 이를 A 유형의 깨달음이라 하겠다.

반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문혜(聞慧), 사혜(思慧), 수혜(修慧), 즉 삼혜(三慧)의 작용 끝에 다시 계학(戒學), 정학(定學), 혜학(慧學)을 닦아 이루어진 특정한 상태, 즉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없었던 것을 개발하고 만들어 낸 것이라 한다면, 이에는 '언어를 가다듬는 침묵'이 가치가 있다. 풀어 이야기하자면, 붓다의 말씀을 듣고 들은 바를 생각해 그 말씀이 옳다고 결정하게 되면 이에 수행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삼혜다. 그리고 실제 수행은 붓다께서 말씀하신 생활을 지키고 여러 사색을 명확히 해 최종적으로 지금까지는 없었던 지혜를 완성하는 것, 이것이 삼학이다. 이를 B 유형의 깨달음이라 하겠다.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대승 혹은 아시아 불교의 주류는 A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소승 혹은 인도불교의 주류는 B에 있었다. A의 유형에서 자주 관찰되는 파도의 비유에서는 바다의 심층은 고요해 움직이지 않지만, 그 표면은 바람에 의해 파도치며 조용할 날이 없다고 한다. 이때 심층은 파도가 이는 표면을 낳지만, 그 자체는 고요한 본각의 자리이다. 파도가 이는 표면은 시끄럽지만, 사실 고요한 심층에서 나왔기에 언제든 심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이므로 시각이라고 한다. 이를 공간적 연기의 이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여기서 원인(본각)과 결과(시각)는 상하(上下)로서 공간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내포한다.

반면 B에서는 명확히 시간의 흐름이 느껴진다. 지금 여기의 내가 붓다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판단하며 이를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그 끝에 붓다가 약속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에서 사로, 사에서 혜로, 계에서 정으로, 정에서 혜로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시간의 흐름 그 자체로 이해돼 간다. 나는 이를 전후(前後)라는 시간적 이미지로 이해한다. 수행은 끝없는 미래로의 여정으로 이미 버린 고향은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나의 기층이나 기저는 궁금하지 않다. 그저 붓다의 말씀을 들은 이상 나의 기층, 기저를 버리고 붓다의 말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시간은 변화이고 변화는 생멸이며 생멸하는 것을 포착하기 위해 우리는 언어를 쓴다. A에서 시간은 무화되고 공간만이 남는다. 시간의 무화는 곧 언어의 절멸이고 이는 '언어를 초월하는 침묵'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반면 B에서 시간은 소중하며 그 순간순간을 방일하지 않게, 즉 불방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생멸하는 과정 속의 불방일을 위해 '언어를 가다듬는 침묵'이 반드시 필요하다. '님의 침묵'에는 희망, 만남 등 명확히 미래를 지칭하는 시간의 흐름이 읽혀진다. 나는 불교적인 의미에서 '님의 침묵'의 침묵이 A가 아니라 B에 기초하고 있음을, 즉 '언어를 가다듬는 침묵'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리고 훗날 다시 만날 님에게 하고픈 말을 생각하고 있었으리라.

〈동국대 박사〉

삼승 정법 수호하면 야차 등도 옹호한다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⑩ 착한 사람의 복덕(진선인 복덕)

이번 호에서는 〈지장십륜경〉 제3권에서부터 무의행품(無依行品, 의지함이 없는 행, 번뇌의 요소가 없는 경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제4장 '유의행품'(有依行品, 의지할 곳이 있는 행)의 1, 2, 3편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때 지장보살마하살이 부처님께 사뢰었다. "세존이시어, 만일 착한 재관, 장자, 사문, 바라문 등이면, 나와 남과 후세(後世)와 불법도 잘 수호할 것이며, 출가한 이가 법의 그릇이거나 아니거나 계율이 없더라도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었으면 그를 공경 공양하나이다. … 십종 악륜에 있어서 자신도 물들지 않거니와, 항상 남을 권하여 열 가지 악륜을 떠나게 합니다. 선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바른 법을 배우고, 삼보의 씨앗을 치성하며 선지식을 친근합니다. … 이같이 착한 왕과 바라문 등은 얼마나 큰 복을 얻고, 또 지은 죄를 얼마만큼 멸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가령 어떤 사람이 이 세간에 나와 큰 위력을 갖추어 아침에 칠보를 모아 남섬부주에 가득 채워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보시하고, 한낮과 저녁에도 그렇게 계속해서 백천 년을 했다면, 그 사람의 복 무더기는 많겠는가, 적겠는가?

지장보살이 사뢰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의 복 무더기는 헤아릴 수 없어, 셈으로도 비유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그대의 말과 같다. 가령 어떤 이가 큰 위력을 갖춰 스님네를 위해 절을 세우되, 넓이가 사대주와 같고 방과 책상, 침구, 의복 음식, 약품 등 온갖 필수품을 마련하여 모든 성문, 보살과 머무르며, 부지런히 수행하되 수없이 많은 세월을 지내는 동안 공양을 계속 끊이지 않으면, 그의 복 무더기가 많겠는가, 적겠는가?"

지장보살이 사뢰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의 말과 같다. 어떤 이가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탑을 세우되 높이와 넓이가 삼천대천세계와 같다면, 앞의 모든 스님을 위해 절을 세운 복 무더기는 백분의 일, 내지 천분의 일, 백 천분의 일, 구지 분(억, 만억 등 무수한 수) … 오파니 살담분(수數의 극極)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선남자야, 가령 바라밀다를 얻고 팔해탈과 선정을 갖춘 아라한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차 있는데, 그들 모두가 다섯 군데로 묶여 백천 년을 경과했다고 하자. 그때 어떤 사람이 복덕을 짓기 위해 그들을 풀어 주고 향탕에 목욕시키고 필수품을 공급했다고 하자. 그리고 열반한 뒤에는 공양하고 화장하여 사리를 거두어 칠보로서 탑을 세워 … 향, 꽃등으로 공양하였다면 앞에서 말한 부처님 사리를 위해 탑을 세운 복 무더기도 아라한을 풀어 주는 복 무더기에 비하면, 백분의 일, 천분의 일 … 구지분이나 오파니살담분 일에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선남자야, 만일 저 착한 왕(재관, 거사, 장자) 등이 열 가지 악륜에 자기도 물들지 않고 남도 권유해 악륜을 떠나게 하면, 그 얻는 복덕이 앞에서 말한 복 무더기보다 많되 헤아릴 수 없으며, 생긴 복만큼 죄 또한 없어지느니라."

"또 … 선남자야, 저 착한 왕과 권속 등이 나의 법을 잘 호지하며 삼승의 정법을 수호하되 성문법을 듣고 공양할 때에는, 독각승과 대승의 법에 대해 비방하지 않고 독각이나 대승의 법을 듣고 공양할 때에도 각기 비방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다. 또 스님들에게 공급해야 할 물건을 간직하여 법답게 쓰이도록 하며, 스스로 쓰거나 남을 시켜 사용하지도 않는다. … 또 삼승의 법을 잘 설명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공경하며 보호하여 힘이 돼 주고, 남으로 하여금 헐뜯고 욕하지 못하게 한다. 출가한 사람을 존중하고 위안하며 여래의 거룩한 가르침을 믿고 받들어 잘 호지하며, 결코 탑을 부수지 않고 항상 스님들의 절을 잘 보호하며, 출가한 나의 제자들의 처소 또한 헐거나 없애지 않고, 속가로 돌려보내거나 그러한 일을 꾸미지도 않는다.

이러한 착한 왕 등의 권속들은 이러한 공덕을 갖추었기에, 일체 하늘, 용, 야차 등이 자비심으로 옹호하며 지키느니라. 이리하여 그들이 사는 국토와 유정들은 안온 풍성하여 즐거우며, 이웃 나라도 무력으로 침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덕을 공경 사모하여 스스로 와서 귀화하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계속 선업을 닦고 악을 고갈시켜 하늘과 사람은 늘어나며 그 신명을 수호하여 오래 살게 한다. 나와 남의 번뇌도 멸하게 하고 보리의 도와 육바라밀에 머무르며 일체 삿되고 나쁜 도를 파괴하고 생사의 바다에 오래 빠져 있지 않아,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불보살을 만나 공경하고 받들어 잠시도 쉬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래지 않아 모두가 그 뜻한 바를 따라 각기 부처님 국토에 편히 살면서 위없는 정등각을 증득할 것이다."

〈송림사 주지〉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세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출발일 : 11월25일 출발~11월30일 도착
▶ 동참금 : 159만원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인도양의 진주 아름다운 스리랑카 성지순례
출발일 : 11월26일 출발~12월03일 도착(8일간)
■ 일정: 인천-콜롬보-담불라-아누라다푸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야(홍차산지)-갈레-아훈갈라-콜롬보-인천
▶ 동참금 : 269만원

인도, 네팔 성지순례 10일
1월23일 출발~2월01일 도착
(인도성지 10일 일정)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320만원

남미여행 5개국 18일
페루 마추픽추,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사막, 칠레 토레스델파이네 국립공원,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엘칼라파테 빙하, 브라질 이과수폭포,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주요 관광지
출발일 : 3월06일~3월23일
▶ 동참금 : 1690만원(11월30일까지 신청시 이후는 1790만원)

동유럽 5개국 11일
동유럽 5개국 헝가리-크로아티아(드브로브니크 포함)-슬로베니아-오스트리아-체코의 주요 명소를 돌아보는 멋진 코스입니다.
출발일 : 6월01일~6월11일
▶ 동참금 : 549만원

이탈리아의 알프스 돌로미테 여행 10일
돌로미테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로
7월초는 야생화가 만발한 환상적인 여행 일정입니다.
출발일 : 7월09일~7월17일
▶ 동참금 : 749만원

남프랑스 힐링여행 12일
니스-모나코-액상프로방스-아비뇽-아를-카르카손 등
아름다운 남프랑스만 여행하는 최상의 힐링여행
출발일 : 4월30일~5월11일
▶ 동참금 : 790만원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https://maumtour.com/

티베트 수미산 순례 16일
부처님의 탄생과 같은 말띠 해인 26년도는
12년 만에 찾아오는 성스러운 수미산 순례의 기회입니다.
출발일 : 6월16일~7월01일
▶ 동참금 : 570만원